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5. 28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	허영길	☎ 760-7710
		업무담당자	오승협	☎ 760-772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애월읍 양채류 연작지 토양환경개선 실증사업 추진

- 양배추 · 브로콜리 연작지 대상...녹두 · 보리 재배 소득 비교 · 분석 -

- 매년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연작하며 발생하는 고질적인 ‘뿌리혹병(무사마귀병)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가 작물 윤작 실증에 나선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도 시책인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과 연계해 애월읍 양채류 연작지 1ha를 대상으로 ‘녹두 · 보리 작부체계 실증사업’을 추진한다.
 - 뿌리혹병은 배추과 작물에 치명적인 대표적 토양 전염성 병해로 빗물이나 농기구를 통해 쉽게 번지며, 토양 속에서 수년간 살아남는다. 특히 흙이 습하고 산성(pH 6.0 이하)일 때 피해가 크다.
 - 현재 농가에서는 모종을 심기 전 약제를 뿌려 토양을 소독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효율적인 방제에 한계를 겪는 실정이다.
-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양배추와 브로콜리 대신, 다른 작물을 심어 병의 고리를 끊어내는 윤작 방식을 농가에 적용한다.
 - 실증에 참여하는 밭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‘녹두’를,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‘보리’를 심게 된다.
 -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양채류만 재배했을 때의 소득과 새로운 작물(녹두 · 보리) 판매액 및 토양생태환경보전금을 합친 소득



을 꼼꼼히 비교·분석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찾을 계획이다.

- 이번 실증사업 참여자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.
 - 6월 중순 현장 점검을 거쳐 6월 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,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녹두와 보리 종자를 비롯해 일부 생산자재를 지원한다.
- 오승협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는 “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양채류 이어짓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돌려짓기 모델을 발굴하겠다” 며 “양채류 과잉 생산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1ha 기준 예상소득>

- 녹두+보리 재배시 예상소득: **1,600만 원/ha**
 - 발작물직불금 25 + 토양생태환경보전금 440 + 녹두 1,005 + 보리 130
 - * 토양생태환경보전금: 2026년 기준 1년차 지원단가 440원
- 양배추 재배시 예상소득: **1,355만 원/ha**
 - 발작물직불금 25 + 양배추 1,330 * 2024년 농산물소득자료